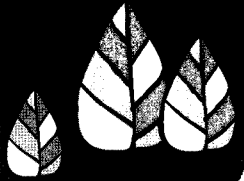


축산 소식



한우

“구제역 방역에 한우농가 힘 보태요”

전국한우협회, 150개 시군에 성금·물
품 전달

전국의 한우농가들이 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방역당국에 방역성금과 물품을 기탁해 큰 힘이 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농가들이 거출한 한우자조금으로 방역성금 4억3,000만원을 마련, 협회 지부 및 한우자조금 대의원을 통해 전국 150개 시군 지자체에 방역성금과 물품(방역복, 방한복, 방역기, 소독약, 식품 등)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남호경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전국한우협회 회장은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공무원, 경찰, 군인까지 동원되어 우리 축산업을 살리고 있는데, 한우농가들이 이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한우농가들이 직접 방역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농가들의 성의를 표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방역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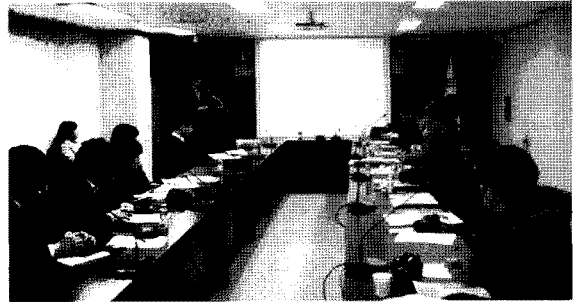
축산경제·옥미영 기자·omy@chukkyung.co.kr

양돈

‘한돈판매점’

부가가치 연 75억 원 창출

최승철 건국대 교수, 연구용역 최종 발
표회서 밝혀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15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돈판매점 인증제도의 평가 및 향후 발전 전략 연구용역 최종 발표회’를 개최했다.

또 한돈판매점 인증사업이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연간 총 75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국 540여개 한돈판매점 인증업소에 대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효율성, 매장지원 내용 적정성, 국산돼지고기 판매 촉진의 효율성 등을 평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 인증사업에 투입된 자조금 예산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했다.

이날 최승철 건국대학교 교수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점 확대전략은 인구분포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돈판매점 인증점의 적정수는 1,278개로 파악됐다”며 “이같은 수치는 페리카나(1,380여개소), 두레쥬르(1,294개소), 미니스톱(1,200개소)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돈의 홍보 및 소비의 장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1,278개소로 늘어날 경우(평균 일 매출 141만원 기준) 연간 돈육 소비량은 51만 400톤으로 이는 전체 한돈 생산량의 7.1%에 해당된다"며 "이 사업을 통해 연간 46억 3,000만원 가량의 소비상승 효과가 있고,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75억원의 양돈산업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돈에 대한 무형의 광고가치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또한 "한돈판매 인증점의 간판, 내부시설 디자인 등 인테리어 및 외관 표준화는 비용과 업소 격차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존 제공되는 홍보물 부착과 전시의 표준화와 메뉴판, 테이블세팅, 인증점 고유메뉴 등이 표준화 된다면 충분히 인증점 통일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경제 • 한정희 기자 • penergy@chukkyung.co.kr

계란의 유통차단을 위한 감시 및 홍보 활동 강화"를 주문한 농식품부의 공문과 관련, 전국 20개 지부에서 계도 및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최근 AI발생과 설수요로 인해 난가가 급등하면서 한 동안 잠잠하던 오파란 전문수집상이 다시 등장해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계란신뢰도 하락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난각이 손상돼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막이 손상된 알, 부화에 이용된 알 및 기영란 등을 식용부적합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계란유통협회는 식용부적합알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품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오파란 전문 수집상 신고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강종성 회장은 "저품질계란 전문 수집상을 이번 기회에 근절하고, 고품질의 우리계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어민신문 • 서상현 기자 • seosh@agrinet.co.kr



식용부적합 계란 유통

양계

‘꼼작마’

계란유통협회, 오파란 전문수집상 단속 등 나서

계란가격이 급등하면서 식용부적합 계란의 시중유통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계란유통인들이 자체감시요원을 지정해 오파란 전문 수집상 단속 등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사)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강종성)은 최근, '식용부적합



원유부족 사태, 생산성 극대화해 해결한다

농진청, 2월 젖소 사양관리 요령 제시

농촌진흥청은 젖소 사육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야 할 '2월의 젖소 사양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구제역 발생으로 1분기 원유 생산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원유수급의 불균형으로 원유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구제역 매몰처분으로 3월 사육 마리수는 8.5~9.6% 감소한 41만~41만 5천 마리 정도로 착유우가 감소하고, 겨울한파로 마리당 원유 생산성이 낮아져 1분기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17% 감소한 43만 2천 톤(사육 마리수 전체 5% 감소 시)이 될 전망이다이라고 한다.

이에 농가에서는 마리당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산유량을 높이기 위해 젖을 생산하는 초기 착유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섭취량을 최대한 높여 최고 유량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사료급여는 분만 전의 사료급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분만 전의 사료급여 시스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분만 전에는 채식량을 높이기 위해 TDN(가소화 영양소 총량: Total Digestible Nutrients)이 높고 품질이 뛰어난 양질조사료를 급여하고, 분만 전에 급여하고 있던 사료의 종류를 크게 바꾸지 않도록 하며, 농후사료는 분만 후 3일째 무렵부터 1일 0.5~1kg씩 늘려 준다.

사료 중의 조단백질 함량은 18%, TDN 함량은 75% 이상을 기준으로 사료설계와 급여를 하되, 분만 후 3주간은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단백질을 19%로 높여준다.

살이 찌소는 케토시스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이아신 등을 투여한다.

또한 분만 후 양호한 번식을 위해 분만 후 너무 마르지 않도록(BCS 최저 2.5 이상 유지) 해야 한다.

육성우는 다음 착유우 후보군으로 농가 수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육성우 사양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육성우의 유지요구량은 일반적으로 여름보다 겨울에 약 24.7% 높기 때문에 겨울철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겨울철 기온 저하로 인한 사료섭취량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구제역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농장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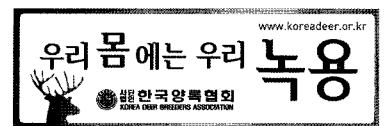
농촌진흥청 낙농과 기광석 연구관은 “소독제는 종류에 따라 산도(pH)와 일어나는 반응도 다르므로 농가에서는 소독제를 혼합해 사용하지 말고 규정을 지켜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브뉴스·도니희기자·a1@livesnews.com



국산녹용홍보 차량용 스티커 제작

한국양록협회는 국산녹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차량용 국산녹용 홍보 스티커를 제작했다. '우리 몸에는 우리 녹용'이라는 표어로 제작된 홍보 스티커는 녹용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갈색톤으로 전체적인 이미지를 표현했으며 깔끔한 글씨체를 사용해 읽기 쉽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승용차용 스티커 ▲트럭용 스티커

모두 2종으로 제작된 홍보 스티커는 직사각형의 트럭용 스티커와 원형의 승용차형 스티커로 나누어 제작했으며 차량별로 맞춰 사용할 수 있어 높은 홍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트럭용 스티커는 차량의 옆면에, 승용차형 스티커는 차의 앞 또는 뒤 유리창에 부착하여 사용하며 추후 회원 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다.

강준수 회장은 “국산농용의 우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산농용의 장점을 양록농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홍보할 때 더욱 효과가 크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홍보활동을 통해 농가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용의 우수성을 알릴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양봉협회 제공



세계양봉대회 유치지역 ‘대전광역시’ 선정

- 대전, 광주전남, 인천, 제주 4개 지역 치열한 경합

- 2015세계양봉대회 유치 위해 지금부터가 시작



세계양봉대회 유치지역으로 대전광역시가 선정되어 2015세계양봉대회 유치에 함께 할 예정이다.

한국양봉협회 제공

지난 2월 23일(수) 대전 아드리아 호텔에서 열린 ‘2015세계양봉대회 유치지역 선정’에는 양봉협회 명예회장(2), 임원·지회장(25), 조합(13), 학회(9) 등 유치위원 총 52명 중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발표 및 투표를 실시했다. 세계양봉대회 유치 희망지역으로는 광주전남, 대전, 제주, 인천 등 총 4개의 지역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발표순서는 지난 2월 21일(월) 공개추첨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한 팀당 총 2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각 지역의 제안서와 PT는 자료출방지와 공정한 심사를 위해 현장에서 배포·공개토록 했다.

각 지역의 제안서 발표가 끝난 후 유치위원들은 차례로 나와 신중하게 투표에 임하였다. 개표결과 광주전남 14표, 대전 31표, 제주 1표, 인천 3표로 대전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 142차 투표없이 유치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지난 아시아양봉대회의 대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AAA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우건석 교수는 “세계양봉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 주신 모든 지역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올 9월에 있는 아르헨티나 세계양봉대회에 참가하여 한국유치를 일궈내는 것이다.

지역을 떠나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세계양봉대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며 참가지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위원들의 화합을 유도했다.

앞으로 세계양봉대회 유치위원회는 3월부터 전문업체를 통해 유치제안서를 제작하고 4월초 아피몬디아로 제출할 계획이다.